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

QUARTERLY MAGAZINE OF ACRC I 2016 SUMMER

국민권익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

QUARTERLY MAGAZINE OF ACRC

상상으로 보인다

VOL.49
2016 / SUMMER

NEW STAY 새로운 주거문화의 시작

아이는 즐겁고, 엄마는 걱정없어요

분양주택 수준의 새집에서 8년 동안 안심하고 살게 됩니다

- 8년간 내 집처럼, 이사 걱정없이 오래오래
- 연 5%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 임대료 부담없게
- 육아, 청소, 교육 등 토탈 주거 서비스로 편리하게
- 연말까지 12,000호 모집
  (서울, 인천, 대구, 수원, 화성, 진천 등)
  www.molit.go.kr/newstay/

국토교통부 |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개방·공유·소통·협력]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

QUARTERLY MAGAZINE OF ACRC

CONTENTS 2016 SUMMER

ACRC on

04 스페셜 1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08 스페셜 2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주간

10 줌인
국민권익위원회 들여다보기 - Part 2. 고충처리국

14 사례 돋보기
난치병 자퇴로 인한 군 장학금 반납 취소 사례

16 현장 24시 1
정부3.0 국민체험마당 현장

20 현장 24시 2
속초 이동신문고 현장

22 현장 24시 3
구미시 현장조정 회의

24 민원 빅데이터
음식점 이용 관련 민원 분석

26 ACRC 리포트
한국-인도네시아, 반부패 향한 협력의 길을 도모하다

THEME on

28 청렴 귀 기울이기
청렴을 이야기하다

30 테마칼럼
옴부즈맨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32 독자에세이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이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4 선진국 가이드
스웨덴 옴부즈맨 제도

CULTURE on

38 한입의 행복
여름 열기 날려줄 전국 냉면 3파전

40 그곳에 가면
한여름 더위 걱정 끝! 강원도 속초

42 2016 트렌드
오늘도 꿀잠 하셨나요?

44 생활법률상식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구제 방법

46 권익위 문화초이스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문화생활

48 힐링 컬러링
바닷속 이야기를 만들어주세요!

50 ACRC 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식

52 소통마당
독자의견과 퀴즈

발행일 2016년 7월 20일(통권 49호) |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 **발행인** 성영훈 | **편집인** 임윤주 |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전화 (044)200-7070 | **팩스** (044)200-7911 | **홈페이지** www.acrc.go.kr |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 **페이스북** www.facebook/loveacrc | **디자인** (주)대통기획 (02)2269-3613 | **인쇄** (주)영은문화 (02)2274-9250

청렴한 사회를 향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지난 5월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가 열렸다.
오는 9월 28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각계의 입장과 다양한 의견으로 토론을 벌였다.
시행을 앞두고 법 제정 배경과 실효성, 사회적 파장 등에 대해 나눈 격론의 현장을 소개한다.

글 • 편집실

공청회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과 지금까지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시행령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병섭 서울대 교수는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만드는 데 큰 기초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진행을 시작했다.
먼저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 음식물 · 선물 · 경조사비의 가액기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등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소비 위축 우려 vs 법의 취지 살려야

토론회에서는 공직자, 언론인, 교원뿐만 아니라 학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농수축산업계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취지에 공감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의 적절성 여부였다.
임정수 한국수산업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선물이 5만 원까지만 허용되면 명절 수산물 소비가 급감해 수산업 전반에 피해가 커질 것"이며, 수입수산물이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 역시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청탁금지법 수수 대상에서 국내농축산물은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연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은 "경조사에 보내는 꽃은 고유의 미풍양속"이라며, 화훼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는 "법이 시행되면 외식업계는 4조 원의 매출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현실을 반영해 식사 대접 가격을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행시기도 늦추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도 "금품 허용 범위를 5~7만 원 선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생산 관련 분야의 토론자들은 시행령에서 정한 선물가액 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농축산물을 금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이러한 논리에 맞서는 의견도 있었다. 고유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해외의 사례를 들며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기준이 적정하다"고 공감했다. 송준호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은 공무원행동강령보다 오히려 완화됐다. 이 법으로 인해 경제 전반이 위축된다는 것은 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면 오히려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이병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생산유통업자들이 청탁금지법 아래에서 건실하게 생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강한 제재와 합리적인 법 집행 촉구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몇몇 토론자들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직급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발상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 등 공직자 대표 토론자들은 이러한 논쟁들이 자신들을 뇌물수수자로 몰고 있다며, 오히려 청탁금지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이미 공무원들은 청탁금지법보다 더 강한 윤리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며, 법안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 역시 사립학교가 비리 온상, 촌지 받는 현장이라는 인식이 암담하다고 자조하며, 청탁금지법을 더 강하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해 '과잉입법'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의가 직무 자체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강의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초과사례금으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입법 취지를 전반적으로 잘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김유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법률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청탁금지법은 혁명적 발상이라고 언급한 박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추후 예외 없는 법

66
청탁금지법에 대한 논쟁들이
우리들을 뇌물수수자로 몰고 있다.
오히려 청탁금지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 법을 계기로 뇌물 관행을 과감히
척결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99

부패 없는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집행을 위해 국회의원, 정당인, 시민단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이 원칙과 논리에 근거해, 개인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마음을 접어두고 나라 발전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토론 후 방청객들 역시 의견이 나뉘어 청탁금지법을 잘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수산품과 화훼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개진했다. 한 방청객은 "이번 법을 계기로 뇌물 관행을 과감히 척결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으로 많은 이들의 생각을 대변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 김병섭 교수가 "청탁금지법이 잘 시행되고 부패 없는 사회가 되어서 농축수산업, 화훼업 등 각종 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토론회는 이처럼 경기 위축이 우려되므로 일부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부패척결을 위해 원안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오는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란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66
청탁금지법이 잘 시행되고
부패 없는 사회가 되어서
농축수산업, 화훼업 등 각종 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99

스페셜 2

착한기업의 시대
권익위, 기업윤리주간 운영

권익위는 6월 2일을 기업윤리의 날로 정하고, 기업윤리의 날이 있는 주(올해의 경우 5월 30일~6월 3일)를 기업윤리주간으로 정해 청렴문화제, 윤리경영 워크숍 등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글 • 편집실

기업윤리,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인다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옥시' 사태. 옥시는 총 453만 개의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며 부동의 1위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기업이다. 하지만 옥시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게시판 글을 삭제하고 대학교수에게 사측 입장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작성시켰으며,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등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취했던 모든 정황이 드러나면서 다시 한 번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이는 분노한 국민들의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해왔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건이 터졌을 때 먼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원인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번 옥시 사태는 기업윤리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비윤리적인 기업경영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권익위는 윤리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공감대를 확산함으로써 통합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윤리가 연상되는 6월 2일(62=육이=윤리)을 '기업윤리의 날', 윤리의 날이 포함된 주를 '기업윤리주간'으로 정하여 각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윤리실천의 날', '윤리데이', '청렴의 날' 등 다양한 이름으로 윤리경영 기념일(주간)을 운영 중이다.

권익위,
기업윤리경영문화 확산에 앞장서다

권익위는 올해 6월 2일이 있는 주인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를 기업윤리주간으로 정하고 청렴문화제, 윤리경영 워크숍 등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기업윤리주간에는 청렴 공모전, 청렴 콘서트, 청렴 특강, 영화상영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반부패 청렴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인 청렴문화제가 나주 혁신도시 일원(5월 30일)과 울산교육청(6월 2일)에서 개최되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콘서트(6월 2일/울산)

5월 31일에는 윤리경영 전문가 특강 및 우수사례 발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제도 소개 등으로 구성된 윤리경영 워크숍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해 반부패 청렴정책을 공유하고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다졌다. 워크숍은 58개 기업, 기업 윤리경영 담당 임직원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내용에 충실한 워크숍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청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6월 3일에는 제약업체 CEO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등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행사에 참여하는 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윤리경영 행사가 펼쳐져 시민, 학생, 회사원, 공직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업윤리주간을 계기로 기업,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 윤리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우리 사회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근시안적으로 이윤창출만 된다면 윤리를 저버려도 성공할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 진정한 이익은 결코 윤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한국윤리학회장의 말처럼 윤리를 강조하는 소비자 의식이 확산되고 착한기업을 요구하는 요즘 시대에 과정보다 결과만 중시하는 기업논리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블로그기자단과 함께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들여다보기

Part 2.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고충처리국

기분 좋은 청량함이 가득했던 지난 6월 3일, 권익위 청사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권익위의 고충처리국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왔답니다. 고충처리국의 주요 업무인 고충민원 처리, 이동신문고 운영, 집단민원 현장조정 업무, 기업고충해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담당자를 만나 뵙고 고충처리국에 관해 궁금했던 점을 아낌없이 질문하고 왔답니다. 권익위 고충처리국 인터뷰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글 • 임정은(블로그기자단)

고충민원 처리
안준영 사무관

행정기관이 내린 위법 · 부당 ·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등 고충민원이 발생했을 때,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애쓰는 고충처리국을 찾아갔습니다.

Q 고충민원을 해결하기까지 진행 과정을 알려 주세요.

A 일단 제기된 민원을 권익위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지 다른 기관으로 넘겨야 할지를 판단합니다. 권익위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은 민원과에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분야별로 세분화된 9개의 민원과에서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죠. 조사관은 관계자료 제출요구, 실지조사, 관계직원의 의견진술 요구 등으로 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가 완료된 사안은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가 진행되고 그 후 민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기관에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Q 민원해결이 끝난 사례를 통계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계 결과들은 권익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A 통계 결과들은 국민이 어떠한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향후 고충처리국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원이 유난히 많이 들어오는 기관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하여 민원 감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화된 고충처리 사례는 권익위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등 각급기관에도 제공되어 유사 민원 처리의 선례가 되는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동신문고로 향해 보겠습니다.

> 66
> 통계 결과들은 국민이 어떠한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향후 고충처리국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99

이동신문고 운영
정승용 주무관

Q 이동신문고 탄생 배경에 대해 알려 주세요.

A 시골의 어르신들이라든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같이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행정기관을 찾기가 여의치 않거나, 인터넷으로도 민원신청이 어려운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국민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권익위의 가치가 담긴 제도인 것이죠.

Q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도 활발히 운영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춤형 이동신문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현역 군장병,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특정 사회 계층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입니다. 현장에서 보다 특화되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약 1,700건의 고충민원 상담 중 650건을 현장에서 해결하며 많은 민원인의 고충을 해소해 주었는데요, 이동신문고에서는 국민들의 고충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A 각 분야의 상담조사관들이 1차적으로 민원인과 대면하여 고충을 경청합니다. 민원인의 요구사항과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하여 현장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합의 가능한 사안은 관계 기관 담당자를 참여시켜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도로와 관련하여 '집 앞길이 포장이 되어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해당 지역의 담당자와 논의하여 언제까지 시정하겠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죠.

국민의 소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열정적인 권익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정 업무에 대해 살펴볼까요?

> 66
> 이동신문고는 시골의 어르신들이라든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같이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행정기관을 찾기가 여의치 않거나, 인터넷으로도 민원신청이 어려운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 99

66

집단민원은 다수의 관계기관이 관련되어 있고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일반 고충민원과는 차별화된 접근방식과
전문역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집단민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99

Q 일반민원과 현장조정으로 해결되는 민원의 차이점이 있나요? 현장조정 업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A 1995년 지방자치단체 시행 이후 지역현안사업을 비롯한 대형국책사업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권리의식과 이해표출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권익위에 제기되는 집단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은 다수의 관계기관이 관련되어 있고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일반 고충민원과는 차별화된 접근방식과 전문역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집단민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Q 현장조정과 관련된 민원은 주로 당사자 간의 갈등에 의한 것일 텐데요, 현장조정 과정에서 권익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A 권익위는 사전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 조정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번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방화대로와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을 연결하는 방화대로 전체구간 5,800m 중 490m 구간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군부대 이전방식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장기간 이견으로 도로개설이 지연되어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권익위는 방화대로 전 구간 도로 개설이 계속 방치될 경우, 대규모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부대의 원활한 이전과 방화대로 전 구간 개설을 통하여 서울 서부권 교통대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방화대로 사례와 같이 현장조정이 필요한 민원은 일반민원과 차별화하여 현장조정 회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권익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소 생소한 업무인 기업고충 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6

기업고충 해결은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운영으로
인해 기업운영에 생기는 피해 등
다양한 장애요인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2009년부터 기업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며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전반적인
민원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99

Q 기업고충 해결 업무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업고충 해결은 어떤 업무인가요?

A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운영으로 인해 기업운영에 생기는 피해 등 다양한 장애요인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2009년부터 기업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며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전반적인 민원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Q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권익위의 활약을 알려 주세요.

A 기업 옴부즈맨 도입 이후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2,235건의 기업고충민원을 발굴하여 타 민원에 비해 우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월 전국 권역별로 기업인 대상 맞춤형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소통함으로써 많은 성과와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죠.

Q 앞으로의 업무방향과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기업 활동의 상대적 약자인 소기업 ·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기업인 현장간담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민원 전담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별 전담 조사관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 활동 장애 규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통한 근본적인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신문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도개선기능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고충민원 처리, 이동신문고 운영, 집단민원 현장조정, 기업고충 해결까지 권익위 고충처리국을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해 지금도 달리고 있을 권익위.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례 돋보기

군(軍)장학금 받던 대학생, 난치병으로 자퇴하자 "반납해라?"

군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받던 중 난치병이 생겨 대학을 자퇴했다면 군에서 받은 장학금을 반납해야 할까?
크론병이라는 난치병에다 장학금 반납명령까지 받은 억울한 대학생의 호소를 듣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위법 ·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글 • 편집실

난치병으로 인한 자퇴로 장학금 반납?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급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군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면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씨는 2년 전 모 대학교 해군학과에 군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하지만 한 학기를 마칠 무렵 '크론병'에 걸려 자퇴할 수밖에 없었다. 난치병 중 하나인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다. 그런 A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난치병이 생겨 자퇴한 것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해군이 작년 6월 A씨에 대해 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한 뒤 그동안 지급된 장학금 약 400만 원을 반납하라는 군 장학금 반납명령을 한 것이다. 난치병으로 어쩔 수 없이 자퇴할 수밖에 없었던 A씨. 과연 장학금을 전부 반납해야 하는 걸까? 이 상황이 억울하고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권익위의 신문고를 두드렸다.

A씨는 군사학부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지원 시에 받은 두 차례의 신체검사에서 병력사항을 숨김없이 모두 밝혔다. 입학 후에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었거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일도 없었다. 질병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활동 또한 하지 않았다. A씨는 '장학금 반납명령은 잘못되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하는 '군 장학금 반납명령 취소청구'를 하였다.

어려운 이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장학금 반납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군참모총장이 A씨에게 한 '군 장학금 반납명령' 처분은 '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먼저, 해군이 두 차례의 신체검사에서 크론병 검사를 하지 않았기에 질병의 유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사실, A씨가 합격하고 얼마 지난 후에 소화관 관련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그러한 증상이 반드시 크론병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확인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희귀 난치병의 발병은 사전 인지 또는 예방이 어려운 점, A씨가 군 장학생으로 선발될 당시 병증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였다고 의심해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구나 A씨가 군 장학생 선발취소 처분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군 장학금 반납명령까지 한 것은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장학금 반납 명령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본인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의 길을 포기해야 했던 A씨는 다행히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좋은 취지로 실시되고 있는 군 장학금 제도. '군 장학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더해져 A씨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스마트해진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3.0의 성과와 미래를 만나다

〈정부3.0 국민체험마당〉 현장 속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체험마당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 한발 앞선 선진 행정서비스를 선보였으며, 관람객들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체험해볼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번 체험마당에 참여해 110 콜센터, 온라인 행정심판, 국민생각함을 관람객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글 • 편집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손끝으로 만나는 스마트한 행정서비스

올해로 시작한 지 4년 차가 된 정부3.0은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이라는 4가지 키워드 아래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말한다.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은 한층 진일보한 정부3.0의 성과와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서비스를 한 눈에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였다.

현장은 정부의 최첨단 행정서비스를 만나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이번 행사는 '손끝으로 만나는 정부'를 주제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200여 개의 정부 서비스가 주요 콘텐츠로 선정됐으며, 정부3.0추진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전시관은 미래관, 스마트관, 참여관, 열림관, 생애관, 데이터관, 맞춤관 등 7가지 테마로 100개 부스에서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가상체험 환경을 구현하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우수한 정부3.0 서비스를 소개했다.

특히 맞춤관에서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부3.0을 만날 수 있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를 신고하는 앱 '안전신문고'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 알림 e-스마트폰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 예방법을 제안했다. 데이터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규모 외식업체 창업을 위한 유통시스템과 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 중소기업청의 지역 · 업종별 상권정보 제공 시스템 등 일자리와 창업 분야가 주목받았다. 참여관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마련한 보이스피싱 예방캠페인 '보이스피싱 꼼짝마' 체험코너가 눈길을 모았고, 행정자치부는 마을공동체 정원 등 국민참여와 소통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주로 구성했다.

열림관에서는 정보공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는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등이 참여했다. 생애관에 마련된 교육부 전시관에서는 자유학기제와 대학입시정보를 모은 대입정보 포털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과학적 체력측정 장비가 갖춰진 '국민체력100 건강충전버스'를 운영해 긴 대기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스마트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스마트한 고용복지 구현을 비롯해 산림병충해와 산불을 해결할 산림청의 드론 등 스마트한 행정시스템들을 만날 수 있었다. 미래관은 방위사업청의 무인기 · 로봇 등 첨단 국방 무기체계, 문화재청의 세계 최초 보행형 수중탐사로봇(크랩스터 CR200) 실물전시 및 시연 등을 통해 첨단과학의 발전양상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돌아보게 했다.

이외에도 전시에 참여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모바일, 터치스크린, 가상현실(VR) 기기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이용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례들을 선보였고, 직접 서비스를 체험하려는 이들이 전시관마다 줄을 이었다. 또한 각종

경연대회, 학술세미나,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도 운영되었다. 22일에도 연극 공연(조달청), 경찰청 의장대 공연(경찰청), 과학수사 체험교실(국과수), 공직자와 함께 하는 청렴콘서트(권익위) 등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활동이 펼쳐졌다.

110 콜센터와 온라인 행정심판, 권익위의 원스톱 권익보호 서비스

권익위도 '2016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 참여해 권익위를 대표하는 정부3.0 정책으로 110 콜센터, 온라인 행정심판, 국민생각함을 적극 홍보했다.

맞춤관에 자리잡은 권익위 전시관에서는 110 콜센터와 온라인 행정심판을 중심으로 '원스톱 권익보호 서비스'를 소개했다.

'110 콜센터' 상담은 일상생활부터 정부 정책 및 민원까지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이다. 특히 전화뿐 아니라 문자와 채팅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화상수화 서비스도 제공되어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한 권익위의 맞춤형서비스로 큰 주목을 받았다. 전시관에는 일반 전화기와 모니터가 준비되어 있어 직접 110 콜센터 상담을 해볼 수 있었다. 이를 직접 체험해 본 이들은 너무 좋은 서비스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화상전화 체험을 한 강우섭 씨도 "110 콜센터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앞으로 생활에 불편한 점 있을 때 이용해 보려구요"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일반인이 직접 온라인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소개가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행정심판 가상 체험존'의 인기가 특히 높았다. 커다란 모니터를 통해 세종청사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들과 직접 면담하며 화상 구술심리를 체험한 관람객들은 마치 실제 행정심판을 받은 듯 놀라워했다.

권익위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정영성 서기관은 "대부분 권익위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잘 모르고 오셨다가 너무 좋은 정보를 알았다고 기분 좋아하며 가십니다"라며 관람객들의 반응을 전했다. 룰렛 이벤트 진행 및 직접 체험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핸드폰 거치대, 텀블러 등을 선물로 제공하기도 했는데, 이 전시관에만 4일 동안 1,200명이 방문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110 콜센터 체험

국민생각함

청렴콘서트 – 청렴판소리

청렴콘서트 – 고 이사의 하루

'국민생각함', '청렴콘서트'에도 많은 관심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은 국민참여관 합동부스에서 홍보에 나섰다. 국민생각함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고 보다 쉽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익위가 개발한 새로운 소통 플랫폼이다. 국민의 아이디어가 정책과 제도로 실현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이용자가 진행 과정과 결과물을 쉽게 확인하고, 국민이 주도적으로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민생각함 부스에서 만난 권익위 국민신문고과 김영희 서기관은 "이렇게 편리한 소통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다면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전시 성과를 소개하며, 앞으로 권익위의 제도개선 추진 시에도 국민의 의견을 듣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2일 오후에는 권익위에서 준비한 '공직자와 함께 하는 청렴콘서트'가 중앙무대에서 열렸다. 청렴콘서트는 청렴을 좀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소개하기 위해 각종 공연형식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날 전시장에서는 관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춘향전의 이몽룡을 부패한 관료로 새롭게 해석한 '청렴판소리'를 시작으로, 인사 청탁과 허위의식을 풍자한 상황극 '고 이사의 하루' 등이 진행되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정대우 주무관은 "콘서트를 통해 청렴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청렴콘서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청렴에 대해 돌아보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길 희망했다. 그의 바람처럼 청렴콘서트는 보는 내내 흥겨움과 더불어,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청렴의 기본이라는 교훈을 전했다.

이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권익위의 활동과 함께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수많은 정보들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정부3.0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길 기대해 본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들립니다

속초 이동신문고 현장

주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라도 찾아가는 '정부3.0 이동신문고'. 이번에는 강원도 속초를 찾아가 주민들의 속 타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합의까지 이뤄내고 돌아왔다.

글 • 편집실

국민권익위원회, 속초시청에서 정부3.0 이동신문고 운영

그 누구보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여느 이동신문고 현장이 그렇듯 상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속초시청 대회의실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상담 시작! 찾아온 주민들은 저마다의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주민들의 마음을 알고, 헤아릴 줄 아는 국민권익위원회 상담 담당자들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며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렸다.

"도저히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소음도 정도껏 해야 사람이 살지 이 정도 소음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조치를 취해달라고 몇 번을 민원을 넣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직접 와서 들어보세요. 여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

속초시 동명동 00번지 주변 XX건설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환경 피해에 대한 민원이었다. 지나가는 버스 소리만으로도 귀를 자극하기 충분한데 건설현장 소음이라니. 누가 들었어도 당연한 것이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저희가 직접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권익위 이동신문고 담당자가 말하자 꼭 현장에 와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 현장을 방문해보니 소음은 생각 이상이었다. 권익위는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하면서 현장합의를 이끌어냈다.

어려운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이번 속초 이동신문고 현장에서는 집단민원상담을 통한 고충민원접수도 진행되었다.

"강과 산으로 둘러싸인 우리 마을.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이동은 정말 힘든 지경이에요. 수십 년 동안 이런 상황이니 지역 발전은커녕 그야말로 고립입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원주시 지정면 간현3리 점말마을. 국가하천인 섬강과 산으로 둘러싸여 수십 년 동안 마을이 고립되어 있으니 교량 등을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었다. 언제까지나 마을이 고립된 상태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지역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교량이 쉽게 개설되기 힘든 부분이라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속초에서 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권익위 이동신문고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한 것이다. 권익위 상담 담당자는 먼저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민원신청서 작성을 도왔다. 그리고 지금 이 신청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고 전하여 신청자의 돌아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다.

강원도 속초 이동신문고 현장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원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있다.

이동신문고 한의진료소 운영

이번 속초 이동신문고는 조금 더 특별했다. 이동신문고 한의진료소를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평소 아파도 병원을 잘 찾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권익위에서 특별히 준비한 진료소이다. 진료소를 방문한 사람들도 이동신문고 상담소와 마찬가지로 아픔을 하소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권익위 상담사 중 누구하나 힘든 얼굴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더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 한다. 이런 마음이 모이고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이동신문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갈 것이다.

발로 뛰는 현장조정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다

구미시 관내도로 신설로 인한 소음피해 및 교통안전 대책 중재

지난 6월 10일, 권익위는 구미시 구평동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피해 해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요구한 주민 2천171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온 과정의 결실이다.

글 • 편집실

주민 불편의 실체를 현장에서 확인

구미시 구평동의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현장에는 한낮의 뙤약볕 아래 주민들이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곳은 지난 2년여 동안 2천여 명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곳으로, 도로 공사 탓에 생기는 소음피해 해결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곳이다.

이날은 제기된 민원의 현장 확인을 위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과 남유진 구미시장, 이성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김대현 구미경찰서장 등 관계기관과 민원 당사자들이 함께 현장에 모여 문제 상황을 직접 확인하였다.

도로 공사가 이뤄지는 주변 지형과 지역 상황을 살펴보니 주민들의 민원 이유가 한눈에 들어온다. 신설되는 도로에서 구평 1차 영무예다음아파트까지의 거리는 불과 20여 미터다. 심각한 교통소음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인근 초등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어 아이들이 사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구평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통학을 하기 위해서는 4개의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야 하는데, 우회도로 현장 진출로가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의 교각 기둥이 내리막길을 달리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이 요구한 대책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통소음의 실질적 차단을 위해 방음벽이 당초 설계보다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은 이와 달랐다. 본래 계획대로 '높이 5m, 길이 185m의 방음벽으로도 소음 환경기준치인 주간 65dB, 야간 55dB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방음벽 확장이 불필요하며,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 또한 사업비 증가로 인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이한 시각과 요구를 조정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이날 회의의 목적이었다.

회의 시작 전부터 주민센터 회의실은 주민들과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장 및 구미시 관계자들의 등장에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합리적 해결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았던 것이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민원의 내용과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 후 권익위의 중재안이 발표되었다. 이날 권익위가 제시한 중재안은 '당초 설계된 방음벽보다 높이 2.5m, 길이 35m를 더 확장하고, 구평교차로 남측에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민원 신청인 대표의 '동의'와 피신청인의 '이의 없음'이 확인됨으로써 중재안은 최종적으로 확정, 통과되었다. 이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방음벽 연장과 육교 설치를 위해 예산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하고, 구미시는 육교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구미경찰서는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을 계도하기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부단한 노력 계속할 것

조정 당사자 간 상호 서명을 끝으로 이날 조정 회의는 종료되었다. 권익위가 8개월여 간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성영훈 위원장은 맺음말을 통해 "오늘 조정은 소음피해로 거주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주민 여러분들과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관계기관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성사될 수 있었다"며 그동안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준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 "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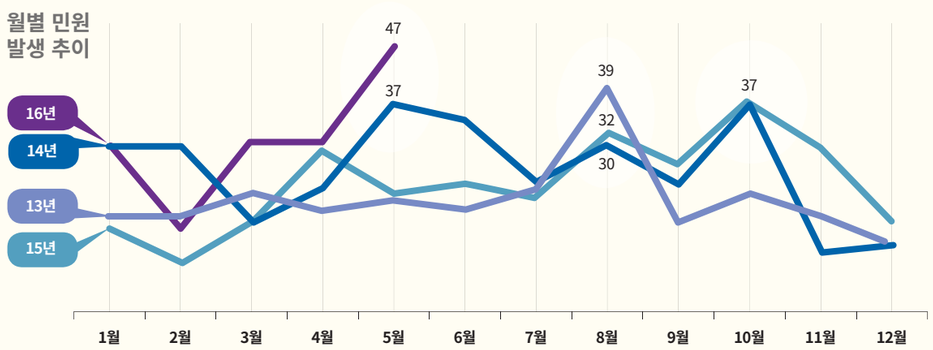
한편 민원인 대표로 참석한 주민들은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준 권익위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구미시장과 구미경찰서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참가자들 또한 어려운 민원에 대한 입장 차이를 권익위가 앞장서 중재하고 해결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후 조정안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뜻을 밝혔다.

주민들을 포함한 참석자 전원의 기념촬영으로 이날 현장조정 회의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조정서를 펼쳐 든 주민과 기관 대표들의 웃음이 환하다. 국민 권익을 위해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이뤄낸 또 하나의 사례다.

여름 휴가철 대비 여행 불편 최소화를 위한 음식점 이용 관련 민원 분석

본격적인 여름휴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여행지 결정 후 지역 맛집 검색에 여념이 없을 때이다. 매년 휴가철마다 바가지요금과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여행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여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식점 이용 관련 민원을 분석하였다.

글 •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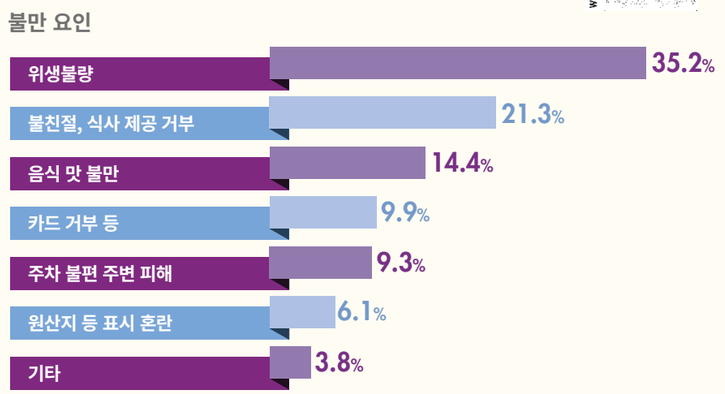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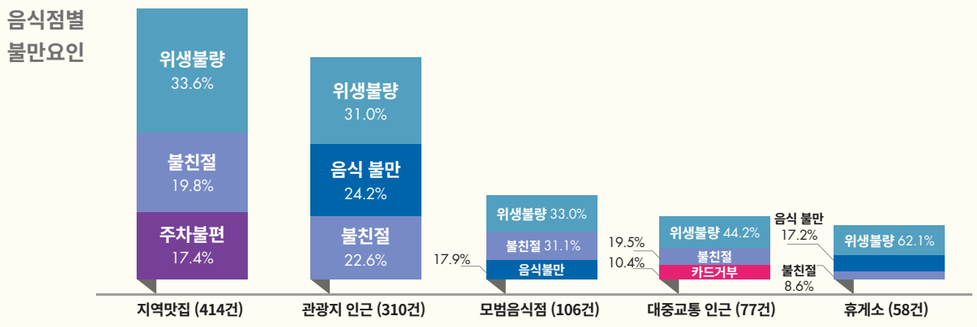
#1
월별 민원 발생 추이

민원은 대체적으로 5월, 8월, 10월에 많이 제기되었다. 여름휴가 피크시기인 8월을 비롯하여 연휴가 있거나 날씨가 온화한 시기에 여행 후 불만사항을 민원으로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위생불량 민원 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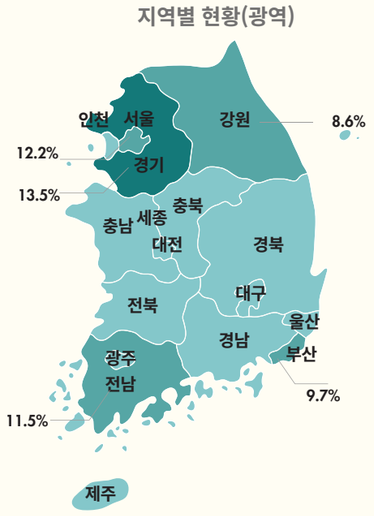
민원 분석 결과 음식점 이용 시 가장 큰 불만은 '위생불량'이었다. 위생 관련 불만 사례로는 '식중독으로 응급실행', '음식 내 낚싯줄 등 이물질 발견', '먹다 남은 반찬 재사용', '립스틱 자국이 있는 물컵 제공' 등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또한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음식점은 '지역 맛집'이고, 그다음이 '관광지 인근 음식점'이라는 점도 민원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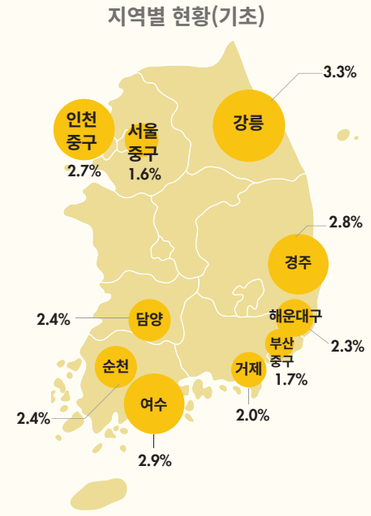




#3
지역별 현황

이번 분석을 통해 음식점 이용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도 파악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13.5%),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강릉시(3.3%)였다. 특히, 기초 지자체에서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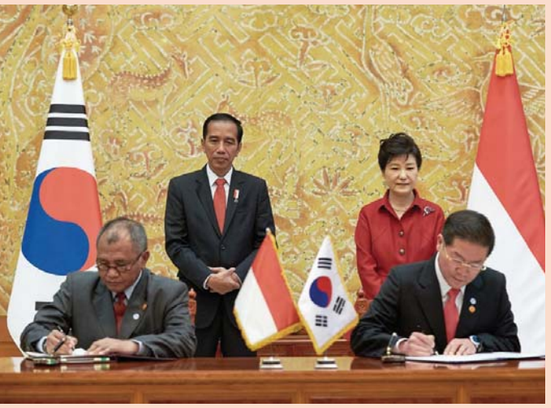


#4
시사점

민원 분석을 토대로 여름철 취약한 음식점 위생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역 맛집', '관광지 인근 음식점' 등의 '위생불량'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그 지역,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 맛집 등 음식점 종사자는 그 명성을 유지하고 고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여행 불편 사항을 최소화해 해당 지역으로 여행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 맛집이나 관광지 인근 음식점에 대하여 수시로 위생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인도네시아, 반부패 향한 협력의 길을 도모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투자, 최초 해외 유전개발 투자, 우리 원조기관인 코이카의 1호 해외사무소 설치, 우리 잠수함과 항공기를 최초 구매한 나라 등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깊은 인연을 가진 나라다. 권익위는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가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반부패 규범 이행을 위해 함께 앞장서기로 했다. 글 • 편집실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식

반부패 의지를 천명하다

권익위는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가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와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권익위의 성영훈 위원장과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아구스 라하르조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지난 2006년 권익위(당시 국가청렴위원회)와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는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처음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기존의 양해각서를 연장하는 것으로, 앞으로 2년간 양 기관은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 정책 · 경험 · 우수사례 공유, 기술지원, 공동연구, 교육훈련, 양자 심포지엄 개최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2006년 양해각서 체결 이래 권익위는 인도네시아 부방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보상, 공직자 행동강령, 청렴교육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에 대해 9차례에 걸쳐 초청연수를 제공하고, 공동 반부패 워크숍을 2차례 개최했다. 그 결과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가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도입되는 성과가 있었다.

청렴도 측정**은 민원인, 기업인, 공직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로, 2007년에 인도네시아에 도입된 이래 인도네시아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인도네시아 정부 행정개혁지표, 국가 중기개발지표 등에 반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와 함께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 검토해 그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도 우리나라로부터 전수받아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한 인도네시아 부방위 아구스 라하르조 위원장

지난 12월 자카르타에서 권익위와 인도네시아 부방위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워크숍"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요청에 따라 오는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탁금지법"이 상세히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청렴교육 · 반부패 민관협력 ·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양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동 워크숍에는 인도네시아 부방위 소속 직원 약 30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쏟아내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특히 청렴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인도네시아 부방위도 우리 못지않게 다양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KANAL KPK(kpk.go.id/kanalkpk)를 통해 부방위의 활동과 관련된 TV 및 라디오 방송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청렴도 측정 등 반부패 정착 지원 강화

권익위는 인도네시아의 청렴도 제고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의 반부패 제도들을 단순히 전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시로 관련 자료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맞춤식 반부패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유엔 반부패 협약',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국제 반부패 규범 이행과 국제공조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영훈 위원장은 "한국의 국가브랜드와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아시아 중심국가인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반부패 정책 한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GDP 기준 세계 16위의 경제대국이며 우리의 12번째 교역 대상국이자 8번째 투자 대상국으로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부패 개선이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교역 ·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부방위 아구스 라하르조 위원장, 바사리아 빤자이딴 부위원장,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투디오노 공사 등 8명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5월 18일 세종시 권익위 청사를 방문하여 성영훈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성영훈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부방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으로 최근 인도네시아의 CPI가 대폭 상승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아구스 라하르조 위원장은 권익위와의 MOU 연장 체결을 기쁘게 생각하며, 권익위의 인적자원 개발, 신고자 보호 · 보상 제도에 관해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구스 라하르조 위원장은 향후 부패예방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성영훈 위원장은 부패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부패 3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환수법」) 제정 노력,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구스 라하르조 위원장은 성영훈 위원장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양측은 이번 양해각서 연장을 계기로 향후 2년간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KPK는 2003년 12월 23일에 설립된 인도네시아의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2015년 말 기준 1,1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KPK는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서 부패예방, 부패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고위공직자 대상 재산심사 및 인사청문회 실시 등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공직자가 연루되거나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부패행위, 10억 루피(약 9천만 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부패행위의 사건을 수사하며 부패혐의가 있는 사건의 경우 특별법원인 반부패법원에 직접 기소한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장관, 주지사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사건을 수사하였으며, KPK가 수사한 사건에 대한 혐의 확정률은 10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KPK의 이같은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KPK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은 뜨겁다. 또한 KPK 설립이후 인도네시아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06년 130위(163개국)에서 2015년 88위(168개국)로 대폭 상승했다.

****청렴도 측정**
청렴도 측정은 지난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중 부패방지 및 척결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깨끗한 세상을 바라는 우리들의 소망 청렴을 이야기하다

2016년 권익위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청렴생태계 조성', '국민체감형 민원해결', '국민소통 내실화'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국민은 물론 기업 및 각종 기관 내에서도 청렴은 우선시되어야 할 기본 태도이다. '청렴 귀 기울이기'에서는 공정한 사회 밑거름이 되는 청렴을 주제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병무청 직원들의 생각을 담아보았다.

나에게 청렴이란 우리 아이의 미래이고, 밥이다

근로복지공단 김정례 차장

우리나라는 1960년 79달러에 머물던 1인당 GDP가 2015년 27,213달러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하였으며, GDP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가 가입할 수 있다는 '2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경유착, 전관예우,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관행 등 부끄러운 자화상이 자리하고 있다.

부모가 나에게 경제적 부를 물려주었다면, 부모가 된 나는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아이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을까? 답은 청렴이다. 이제는 사회적 가치의 성숙이 필요한 때이다. 공정하고 바른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공동체를 위해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렴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고 밥이라 생각한다. 부모가 아이의 밥을 정성으로 짓듯이 오늘도 청렴이 밥이라는 심정으로, 반부패 청렴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불이익은 참아도 불의는 참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때이다.

청렴은 감동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은옥 책임연구원

청렴 업무를 처음 맡게 된 것은 약 2년 전 봄. 그 전에는 기술평가업무만 해왔기에 청렴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당시 기관의 청렴도 결과가 좋지 않았던 터라 부담감이 컸다. 당시 계셨던 감사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직원들은 누구보다 청렴하고, 우리 원 또한 청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 우리의 노력으로 기관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다면 열심히 해보자"라는 것이었다. 그 말씀처럼 우수 기관 벤치마킹, 청렴 자료 스터디, 세미나 주최, 윤리경영 로드맵 수립 등을 직접 하시면서 실무자인 나를 오히려 가르쳐 주시고 잘 해보자고 말씀해 주셨다. 그해 겨울 청렴도 3개 등급 향상, 그다음 해 겨울에는 시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권익위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고 결과 또한 좋으니 이 모두는 기관을 위해 온 마음을 내놓으신 선배님들 덕이 아닌가 싶다. 내가 대신 상을 받았지만 그동안 노력하신 전 감사실장님께 이 공을 돌리고 싶고,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청렴은 상대방을 감동시켜야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상사가 먼저 본을 보여 직원을 감동시켰으니 청렴 업무에 더욱 열성을 다하게 되었고, 그 마음이 기관 전체에 전해졌다고 생각한다.

청렴堂堂! 국민을 위한 노력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배종현 주무관

나는 20여 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는 것이 청렴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였다. 2014년 11월 17일부터 병무청 청렴업무를 담당하면서 북유럽과 싱가폴 같은 청렴한 국가의 사례를 접하고, 국가의 항구적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력보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공동체 의식수준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병무청은 과거 병역 의무자의 부모와 공무원 등이 결탁한 병역비리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비리청'이라는 오명과 지탄을 받았다. 이를 거울삼아 징병신체검사 전산화 등 각종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청(廳)단위 4년(2012·2015년) 연속 최상위(1등급) 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진정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금년은 다음과 같은 청렴시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무청 청렴의지를 나타내는 BI(청렴堂堂! 병무청)를 선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캐릭터를 제작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림과 동시에 병무청 직원 모두가 국민을 위한 병무행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지방병무청별 여건에 맞는 특화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이라는 믿음을 줄 것이다. 병무청 내부적으로도 시스템적 비리·부패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병무청 청렴업무를 수행하면서 먼 훗날 지금 이 시간이 공직생활 중 가장 보람된 기간이라 소회하고 싶다. 청렴堂堂한 병무청! 청렴堂堂한 대한민국의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충민원 해결하기

옴부즈맨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글 • 정정화(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지난 4년 동안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현재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에서 옴부즈맨으로 활동하며 지켜본 고충민원은 나름대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나는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 · 편의적 업무처리로 인한 경우였고, 또 다른 유형으로 민원인의 무리한 주장이나 부당한 요구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민원의 첫 번째 원인, 불합리한 행정제도

일부 공무원들의 안이한 업무처리로 인한 고충민원의 배경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려는 보신주의 행태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민원은 대개 감사나 소송을 통해 해소되기 때문에 필자가 옴부즈맨으로 활동하는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옴부즈맨에게 호소하는 민원은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였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기존 제도를 답습하는 등의 행태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수차례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해구제를 요청했으나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실낱같은 희망으로 옴부즈맨의 문을 두드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민에게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재정비한 정부3.0은 행정제도면이나 민원을 처리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면에서도 아직 보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민원의 두 번째 원인,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감정적 요인

민원인의 무리한 주장이나 부당한 요구의 배경에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감정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었다. 민원인의 자기과시형 또는 과도한 요구의 이면에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서운함이 적대감으로 번진 경우도 있었다. 자신의 입장에 공감해 주기를 원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장광설에 일일이 응대하기 어려운 현실적 괴리가 또 다른 고충민원을 야기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민원처리 역량이 필요하다. 우선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과 적극적 듣기(LISTEN CAREFULLY) 훈련이 요구된다. 대개 민원인들은 지도자나 공무원들이 자신의 상황과 고통을 헤아려 주기를 기대한다. 적극적 듣기를 통해 공감의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고충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경우도 있었다. 그런 연후에는 상황파악을 위한 확인 작업, 정부나 지자체의 입장설명과 사후조치 등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민원처리 역량강화 훈련이 필요한 이유이다 .

갈등조정자로서의 옴부즈맨 역할을 강화해야

최근에는 옴부즈맨의 활동에 공공갈등이나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 단순히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제도개선권고에서 끝나는 소극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합의·조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그간의 활동내역을 보면, 2012년 9월 발족한 이후 2016년 6월까지 처리를 완료한 124건 가운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시정권고(8건), 의견표명(8건), 제도개선권고(8건), 합의·조정(6건), 감사의뢰(1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93건은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법적·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민원으로 기각·각하(44건), 이첩(17건), 취하(14건), 타 기관으로 심의안내(13건), 기타(5건) 등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옴부즈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러나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옴부즈맨의 활동은 전통적으로 시정권고나 제도개선과 같은 비강제적 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했던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적 토대가 구비되어야 한다. 옴부즈맨이 공공갈등과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는 물론 위원회의 사무국 조직과 예산지원 등 제도적 보완도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이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번에 권익위로 온 편지는 그 의미를 더욱 되새기게 하는 듯합니다. 편지의 사연처럼 권익위가 많은 이들의 남은 슬픔을 위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부친의 일로 반세기 넘게 안타까움과 억울함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권익위의 도움으로 평생 가슴에 묻어 두었던 그 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글을 드리며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부친께서 국가를 위해 행하신 그 이상으로 충성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지난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해였습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제가 첫돌을 지내고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청년들의 동원령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길거리에서 트럭에 올라 입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부친께서는 △△△라는 아명으로 불리었는데, 호적상의 ○○○라는 이름을 망각할 정도로 생활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입대 또한 △△△라는 아명으로 하게 되었고 전투 중 우측다리 골절상과 발등에 총을 맞아 관통상으로 군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이후 상이용사 신분이 되어 지팡이에 의지한 채 충북 청원군 오송리로 피난해 살고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부친은 오송리 사무소에서 상이군경 가족으로 밀가루 및 식량 배급을, 거리에선 상이용사증을 보여주며 거리행상으로 가족 부양을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는 부친의 다리를 주물러 드린 기억밖에 없을 정도로 군에서 당한 부상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셨고, 날씨가 궂은 날에는 특히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같이 참전했던 많은 전우들이 전사했다는 얘기와 그 당시 상황의 트라우마로 힘들게 사셨습니다. 전역할 때 지급됐던 상이용사증은 늘 지갑에 넣고 다니셨는데, 분실한 뒤 이름이 달라 재발급받지 못한 것을 무척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름 정정도 몇 번을 하시려다 끝내 못하시고 아픈 추억으로 가슴에 묻은 채 1990년 9월 10일 지병으로 63세 나이에 별세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의 부름에 당연히 따라야겠지요. 그러나 부친은 분명 6·25 참전용사이며, 상이용사 신분으로 전역했음에도 아명 사용으로 입대명과 호적상의 이름을 일치시킬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저의 셋째 동생이 육군본부 홈페이지에서 군번 찾기 서비스를 통해 부친의 아명과 음력 생일이 같은 분의 군번을 찾아냈습니다. 희망찬 마음으로 서울 지방병무청에 병적기록의 이름 정정 신청과 제적등본 및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던 중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던 그때 지인의 권유로 권익위에 민원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관님께 배정이 되고 몇 차례 전화로 당시 부친에 대한 상황을 전해 드렸고 조사관님은 육군본부 병적관리과 실무자와 통화하며 진행하는 과정을 일일이 제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제 동생이 찾은 부친과 이름이 같은 분의 병적기록과 병상의 기록 내용이 다르니 계룡대에 직접 가서 확인하자고 해 계룡대에서 조사관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육군본부 병적관리과 실무자 2명과 부친 아명의 병적기록의 내용을 살펴보니 동명이인의 다른 분이였습니다. 저는 너무 허탈한 심정이 들었지만 조사관님은 실무자 두 분을 계속 설득하며 1950년부터 1953년 사이에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비슷한 기록을 찾아보자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조사관님께서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보며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 본인의 일처럼 기뻐하며 부친 병적기록과 상이대장을 찾았다는 조사관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치 부친이 살아 돌아오신 것 같은 감정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16년 5월 26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부친의 아명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던 본명 ○○○라는 이름으로 정정한 병적부를 65년 만에 발급받는 순간 하늘에 계신 부친께서도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원호대상자로 혜택은 못 받지만 부친의 명예를 찾았다는 마음에 저희 가족들은 권익위에 감사하며, 특히 조사관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하고, 민원을 내 일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처리해 저희 가족의 한을 풀어주신 조사관님과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권익위 위원장님과 전 직원의 노고에 찬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희 가족들도 더욱 국가를 위하여 충성과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1일 이○○

국민권익 보호 및 국가 투명성의 근간

스웨덴 옴부즈맨 제도

1809년 스웨덴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로 처음 시작된 옴부즈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자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고, 현재는 약 100여 개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맨을 최초로 시행한 스웨덴의 옴부즈맨 제도를 살펴보았다.

글 • 편집실

옴부즈맨, 정부의 감시자로 자리 잡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나라들은 단연 북유럽 국가들이다. 스웨덴을 필두로 덴마크, 핀란드 등은 해마다 자리를 바꿔가며 최상위를 다투면서 부패인식지수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나라들에 본보기가 돼 왔다. 여기에는 노동, 사법, 행정, 국방, 환경 등 정부 업무와 관련된 각종 민원과 고충을 처리하는 동시에 감독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옴부즈맨(Ombudsman)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에서 옴부즈맨 제도가 가장 발전하고 활성화된 곳은 유럽이다. 이는 유럽이 부패인식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스웨덴은 옴부즈맨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다. 시민의 권리 구제와 행정 통제를 위해 도입된 옴부즈맨은 구스타프 4세 아돌프 왕 재임 시절인 지난 1809년 이른바 '무혈혁명'을 계기로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비대해지는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발상에서 출범한 이 제도는 지난 2세기 동안 전 세계 100여 개 국으로 확산되었다. 스웨덴어로 '대리인'를 의미하는 옴부즈맨은 정부 시스템을 이루는 전통적인 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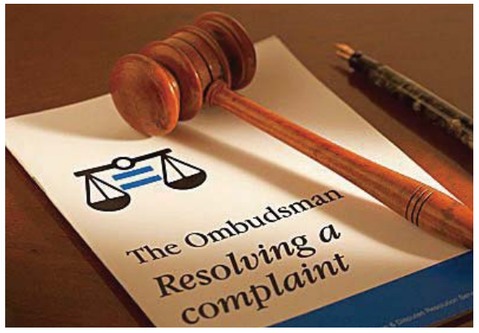
옴부즈맨의 역할과 독립적 지위

의회 옴부즈맨은 중앙 · 지방정부 전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법원, 경찰, 교도소, 군대에 이르기까지 정부 행정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하고 있다. 옴부즈맨은 4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4인의 옴부즈맨이 검사나 경찰관으로 구성된 조사관들과 함께 연 7천여 건이 넘는 민원을 신청 받아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 정도가 큰 사안은 징계 요구나 기소를 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옴부즈맨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분야의 옴부즈맨이 검사와 경찰 등 10여 명의 조사관들과 함께 민원이 발생한 기관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다. 스웨덴의 옴부즈맨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옴부즈맨을 상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분 또한 공무원이다. 4인의 옴부즈맨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이들 중 1인은 수석옴부즈맨이자 옴부즈맨 사무총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수석옴부즈맨은 옴부즈맨사무소의 관리 · 운영이나 직원 임명 등의 책임을 지면서 옴부즈맨 활동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각 옴부즈맨의 업무 범위를 정한다. 다만, 다른 옴부즈맨의 조사활동이나 의사결정에는 개입할 수 없다.

옴부즈맨은 대개 전임 최고법원의 법원장이나 법관 등 저명한 법률가들로 임명된다. 이들은 4년 임기로 연임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1주일에 1회씩 회의를 가지면서 판단 기준 등을 조정한다. 각 옴부즈맨은 관장하는 분야가 구분되어 있어 판단과 결정은 각각 독립적으로 행한다.

옴부즈맨은 헌법과 독립법률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사권 및 예산권 확보를 통한 직무상 독립성도 갖고 있다. 때문에 독자적으로 직원을 임명할 수 있고 예산편성과 관련한 재무상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의회에 대해서도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이 보장된다.



SWEDEN Ombuds man

66

옴부즈맨은 권력의 오용과 남용을 통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스웨덴은 이 제도를 통해 사회에 비리와 부패가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만드는 기초를 다졌다. 스웨덴이 복지국가, 청렴국가라는 명성을 들을 수 있는 근간을 이루는 셈이다.

99

옴부즈맨의 권한과 책임

스웨덴의 옴부즈맨은 조사권, 감찰 및 소추권, 순회시찰권, 의회 보고, 권고 및 의견 표명 등의 권한을 지닌다. 또한 판사의 법률 시행 및 준수 상태를 감찰하고 불법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하게 하는 자를 소추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잘못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경고 및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직무상 범한 죄에 관하여 소추할 수 있다. 여기에 행정기관, 법원, 교도소, 군대, 병원 등에 대한 순회시찰권이 있어 이를 통해 발견한 문제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국민이 신청하여 조사한 경우보다 옴부즈맨이 직권으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 정부기관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발견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옴부즈맨의 직무이다. 400~5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업무 내용과 법률 · 집행 상태에 대한 조사결과 및 1년 동안 권고한 주요 사건을 약술하도록 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모든 공무원에게 배포되며, 옴부즈맨이 법률 집행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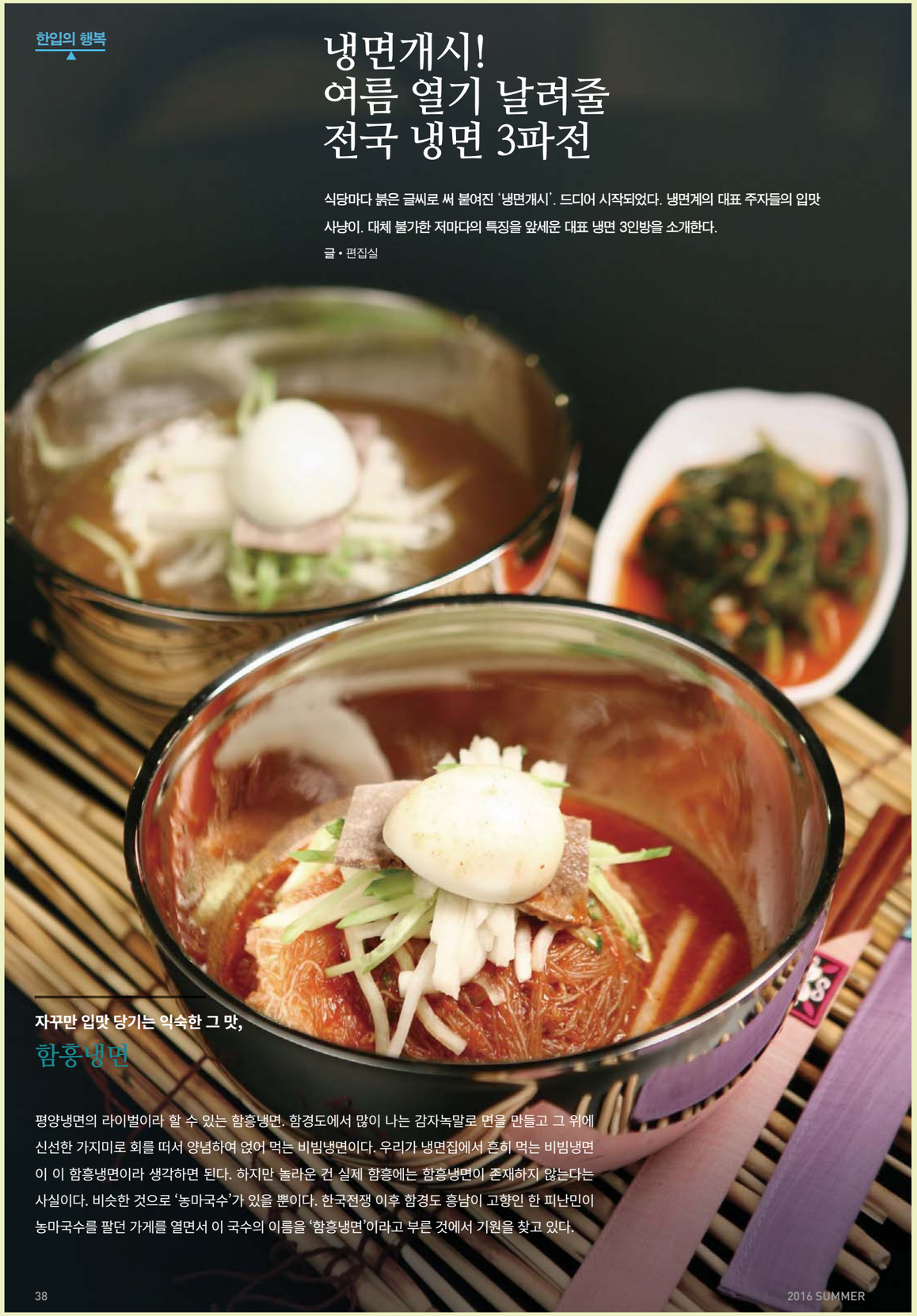
스웨덴은 다양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옴부즈맨 제도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 인종차별이나 성적지향, 장애, 어린이 학대 등에 관한 국가 차원의 옴부즈맨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법에 의해 처벌하며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옴부즈맨은 권력의 오용과 남용을 통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스웨덴은 이 제도를 통해 사회에 비리와 부패가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만드는 기초를 다졌다. 스웨덴이 복지국가, 청렴국가라는 명성을 들을 수 있는 근간을 이루는 셈이다.

냉면개시!
여름 열기 날려줄
전국 냉면 3파전

식당마다 붉은 글씨로 써 붙여진 '냉면개시'. 드디어 시작되었다. 냉면계의 대표 주자들의 입맛 사냥이. 대체 불가한 저마다의 특징을 앞세운 대표 냉면 3인방을 소개한다.

글 • 편집실



자꾸만 입맛 당기는 익숙한 그 맛,

함흥냉면

평양냉면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함흥냉면. 함경도에서 많이 나는 감자녹말로 면을 만들고 그 위에 신선한 가지미로 회를 떠서 양념하여 얹어 먹는 비빔냉면이다. 우리가 냉면집에서 흔히 먹는 비빔냉면이 이 함흥냉면이라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놀라운 건 실제 함흥에는 함흥냉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비슷한 것으로 '농마국수'가 있을 뿐이다. 한국전쟁 이후 함경도 흥남이 고향인 한 피난민이 농마국수를 팔던 가게를 열면서 이 국수의 이름을 '함흥냉면'이라고 부른 것에서 기원을 찾고 있다.

냉면 고수들의 선택,

평양냉면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관서지방의 대표 음식인 평양냉면. 평양냉면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물냉면으로 먹어야 한다. 메밀로 뽑아낸 면에 편육, 오이채, 배채, 삶은 달걀 등을 넣고 동치미 국물을 곁들여 먹는 방식이다. 원래 꿩을 삶은 국물을 이용했으나 꿩이 귀하여 소고기와 사골을 쓰고 있다. 냉면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양냉면은 호불호가 갈린다. 그동안 혀끝에서 바로 강하게 느껴지는 맛에 익숙한 우리에게 평양냉면은 '슴슴하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맛이다.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맛이 아니라서 '세 번은 먹어봐야 평양냉면의 맛을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냉면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은 평양냉면을 최고라 여기기도 한다.

육전이 포인트,

진주냉면

우리나라에서 북한식 냉면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거의 유일한 냉면인 진주냉면. 이병주의 소설 <지리산>에서 일본인 교사 구사마가 '진주를 떠나면 영영 이 맛있는 냉면을 못 먹게 될 텐데'하며 한숨짓는 대목이 나올 정도로 그 맛이 유명했던 진주냉면은 경남 진주의 향토음식이다. 진주냉면의 특징은 소의 사골을 이용해 육수를 달이지 않고 고급 멸치에 속하는 죽방멸치 또는 바지락, 건홍합, 건황태, 문어, 표고버섯 등으로 해물 장국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점이다. 다른 냉면과 달리 잘 익은 배추김치를 다져 넣고, 소고기 우둔살에 달걀을 입혀 부쳐 낸 소고기육전과 지단 등 여러 가지 고명을 얹어 모양새가 화려하다.

집에서 손쉽게 따라하는 함흥냉면 만들기

골뱅이 비빔냉면

집에서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냉면은 함흥냉면이 아닐까. 하지만 함흥냉면에 들어가는 가지미 또는 홍어까지 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가지미 대신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골뱅이를 넣어 매콤새콤한 함흥냉면을 만들어보자.

재료

주재료: 골뱅이(통조림) 1캔, 오이 반개, 냉면 100g
고추장 양념 재료: 고운 고춧가루 4큰술, 설탕 · 고추장 · 다진 마늘 · 간장 2큰술 씩, 2배 식초 4큰술, 소금 1작은술, 참기름 · 깨소금 2큰술씩, 물엿 1큰술

조리과정

1. 골뱅이는 체에 밭쳐 물기를 빼둔다.
2. 오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채썰어둔다.
3. 재료에서 소개한 비율대로 고추장 양념을 만든다.
4. 끓는 물에 냉면을 넣어 삶은 후 찬물에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비벼 씻어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5. 골뱅이와 양념을 섞고 면을 무쳐 그릇에 담아 채썰어둔 오이를 올린다.

한여름 더위 걱정 끝!

강원도 속초

민원해결 650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이동신문고를 통해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즉시 해결한 건이다. 올해 5월에는 여름 피서지로 잘 알려진 강원도 속초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해결책을 몰라 애태우던 민원인들에게 속 시원한 답을 내려준 권익위의 발 빠른 상담은 한여름의 더위를 식혀주는 청량제 같았다. 더위 걱정 없는 강원도 속초로 떠나본다.

글+사진 • 임윤석(여행작가)

골이 깊어 더위가 머물 수 없다

설악산의 천불동계곡은 설악산의 대표 계곡이다.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을 중심으로 동해 쪽에 있는 것을 '외설악'이라 하고, 내륙 쪽에 있는 것을 '내설악'이라 한다. 천불동계곡을 찾아가려면 외설악의 입구인 설악동 신흥사 일주문을 지나 왼편 대청봉 방향으로 올라가면 된다. 계곡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곳을 기점으로 약 7km까지가 천불동계곡이다. 계곡을 마주하면 한국의 계곡 중 가장 아름답다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계곡 곳곳에는 산행을 마치고 더위를 식히려는 등산객들과 더위를 피해 물놀이 재미에 푹 빠진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았다면 꼭 계곡에 발을 담그지 않아도 골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 땀이 식을 것이다. 계곡 중간에 비선대가 있는데 맑은 계곡과 어울려 한 폭의 진경산수화를 연상시킨다. 이토록 아름다운 풍광은 오련폭포까지 이어진다. 상류에 자리한 천당폭포는 마치 천당 같다 해서 명명되었다. 그 아름다움을 짐작할 수 있는 이름이다. 철재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보이는 콸콸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는 바라보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기에 충분하니 멀찌감치 보고 가도 되겠다. 폭포 아래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검푸른 물이 가득하다.

01 설악산국립공원 천불동계곡
02 바다레저 바나나보트
03 속초해수욕장
04 아바이순대

동해안 환상코스, 속초해수욕장에서 영금정까지

속초해수욕장은 속초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 것이 큰 장점이다. 한여름의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은 물론 설악산 등산을 마치고 시원한 바닷물에 첨벙할 요량으로 찾는 등산객들도 많다. 싸고 후하다고 소문난 대포항의 활어회를 먹으러 오는 식도락 여행자들도 발길이 잦다. 해수욕장 앞에 '조도'라는 섬이 있다. 이 섬을 배경으로 해돋이 사진을 찍으려는 사진애호가들이 많이 찾는다. 백사장 솔숲에는 산책하기 좋도록 목재데크가 설치되어 있다. 밤바다의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속초해변오토캠핑장을 이용하자. 도심에서 1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대규모 송림이 있으며 주변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해 가족단위의 여행객에게 알맞다.

북쪽으로 2km 정도를 달리면 아바이순대마을에 닿는다. 마을 앞에는 동해바다가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스라이 이어지고 뒤편에는 청초호가 이름만큼 청초한 모습으로 고요한 수면을 자랑한다. 행정구역상 청호동에 속하지만 흔히 아바이마을로 불리는 이곳은 함경도에 살던 사람들이 한국전쟁 당시 1.4후퇴로 인해 피난을 오면서 형성되었다. 전쟁이 끝나면 돌아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번듯한 집도 없이 허허벌판에 판잣집을 짓고 임시터전을 마련한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전쟁을 직접 겪은 실향민 1세대보다 후손들이 대부분이다. 이곳에서 유명한 아바이순대는 돼지 소창을 이용해 만드는 타지방 순대와 크기부터 다르다. 찹쌀밥, 선지, 파, 마늘, 생강, 우거지, 숙주, 배춧잎 등을 넣어 속이 푸짐하고 먹음직스럽다. 아바이순대라는 이름은 크기 때문에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고, 음식을 만들면 아버지께 먼저 드렸다는 뜻에서 아바이순대라는 설도 있다. 마을에는 아바이순대집들이 즐비해 배고픈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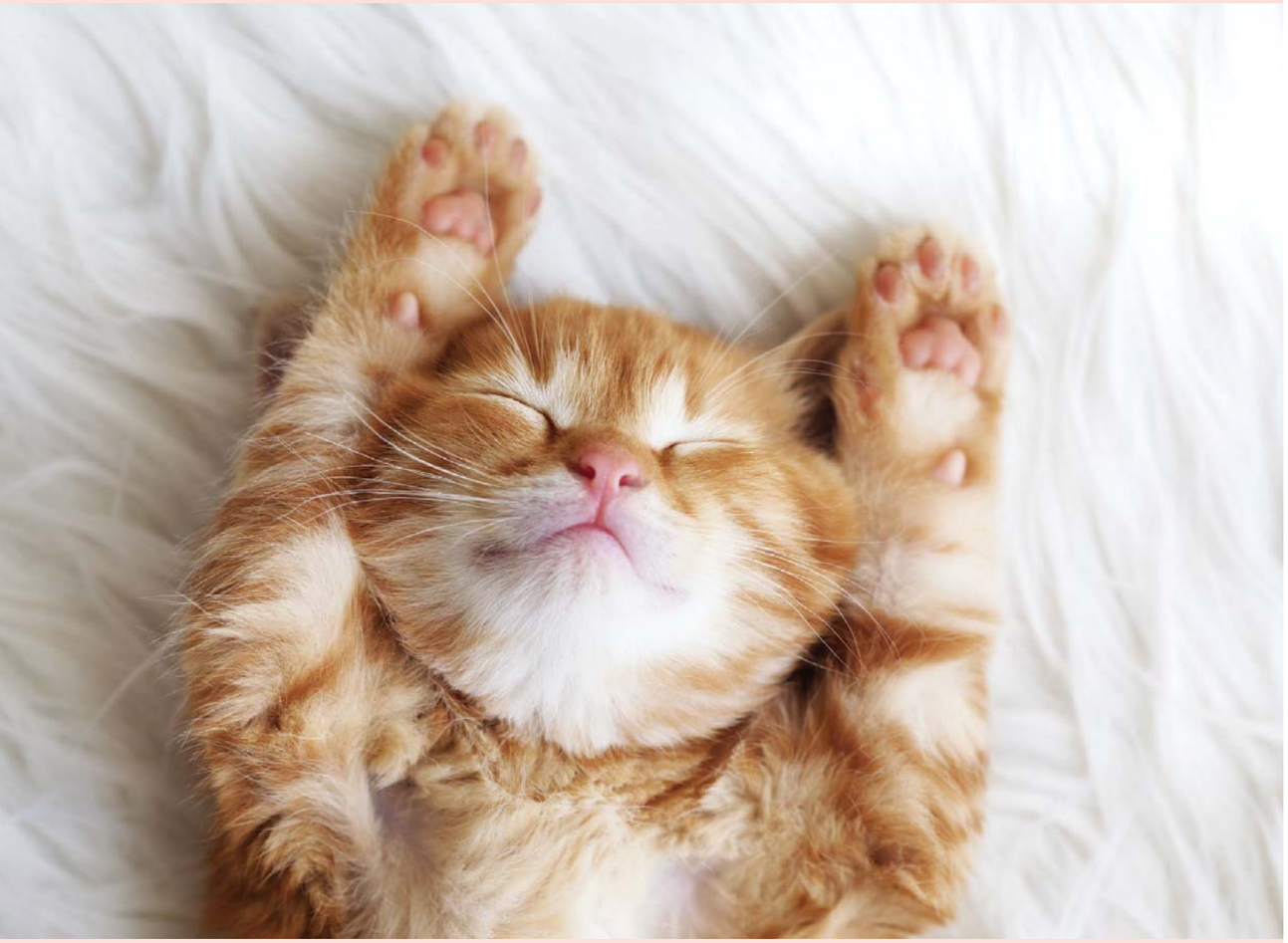
아바이마을을 떠나 속초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지나면 영금정에 이른다. 영금정에 오르면 시원한 동해바다가 코발트 빛으로 빛나고 반대편에는 속초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영금정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속초전망대와 등대해수욕장을 지나 장사항까지 직선도로가 이어진다. 이 구간은 영랑호반을 끼고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도 인기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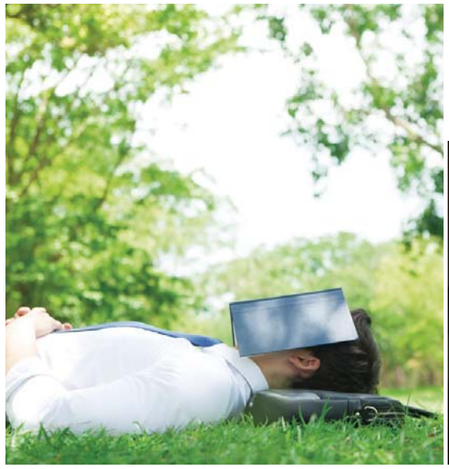
올해 여름은 시원한 바다와 산 그리고 먹거리가 어우러진 속초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여유와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꿀잠 하셨나요?

폭풍 같은 하루를 보내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당신. 제일 먼저 당신의 뇌에게 칭찬을 해주자. 숱하게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해야 했고, 생존을 위한 최선의 판단을 내리며 하루 종일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한 존재다. 그러면 이제 뇌도 쉬어야 할 시간. 바로 수면이다. 수면을 통해 뇌도 휴식을 하고, 잘 쉰만큼 새로운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다. 좋은 수면습관이 중요한 이유다.

글 • 편집실





잠이 보약이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 4시간만 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에디슨이 한 말이다. 반면 아인슈타인은 하루 보통 10시간은 잤다고 한다. 이처럼 숙면이란 개인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적정' 수면시간이란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지만 최소한 6~8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정설이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도 준비가 필요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운동, 설거지, 청소 등 신체활동은 피하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든지 시끄러운 음악을 듣는 것은 자제하여 우리의 몸이 편안한 상태에 돌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이 우리 건강에 이로운 면이 적은 것처럼 숙면에도 마찬가지다. 커피를 마셔도 아무 문제 없이 잠을 잘 잔다는 사람도 있고,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잔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수면 뇌파검사를 해보면 실제론 숙면을 취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 각자의 적정량을 지키도록 하자.

열대야에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수면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준비가 필수라지만 여름철 더위 때문에 잠을 설치는 건 어쩔 수 없다.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시작되면 우리 몸은 기온에 적응하기 위해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들기 어렵다. 여름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체감 기온은 더 올라가 잠들기 힘들어지고, 자고 일어나도 잠을 설친 느낌이 계속 든다.
여름철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름없는 수면 주기를 유지하는 것이다. 덥다고 밖에 나가서 맥주 한 잔 마시며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거나, 밤새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깨뜨리게 되어 잠들기 더욱 어려워진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은 여름철 수면에 도움이 된다. 더워서 잠 못 드는데 왜 따뜻한 물일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 잠이 오기 때문에 샤워 후 뜨거워진 몸이 식으면서 잠이 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잠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도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갔다 떨어지게 만들어 숙면에 도움을 준다.

tip
나는 얼마나 잘 자고 있을까?

전혀 졸리지 않으면 0점, 조금 졸리면 1점, 상당히 졸리면 2점. 매우 졸리면 3점으로 점수를 매겨보자. 8점 이상이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10점 이상이면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것이 확실하므로 수면을 위한 바른 습관을 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01 앉아서 독서할 때
02 TV를 볼 때
03 공공장소에서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04 한 시간 이상 계속 운행 중인 차 속에서 승객으로 앉아 있을 때
05 오후에 쉬면서 혼자 누워 있을 때
06 앉아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
07 술은 마시지 않은 점심 식사 후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08 운전 중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작스레 드리워진 그림자, 햇볕도 마음대로 못 쬐나요?

자연을 누릴 권리, 법으로 배우자!

자연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기도 합니다. 마땅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생활 속 법률상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글 • 편집실 자문 • 권익위 공익법무관

사례

청춘을 바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한 A씨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다. 처음에는 입주한 B 아파트가 마음에 꼭 들었다. 근처에 국립공원 C산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누릴 수 있는 따스한 햇볕과 탁 트인 경관은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었다. 그런데! B 아파트 인근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D 아파트가 작년 완공되었고, 신축 아파트에 가려져서 A씨는 산의 일부밖에는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뿐인가, 햇볕도 이전만큼 들어오지 않아 빨래도 잘 마르지 않는다. A씨는 D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항의도 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지은 건물을 부술 수 있겠느냐'는 말뿐이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의 조언

보호받을 수 있나요?

처음 마련한 내 집이자 마음에 꼭 드는 아파트에서 누리는 햇볕과 전망은 행복감을 여실히 느끼게 했을 겁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드리워진 그림자. 이래저래 불편함에 항의해보지만 지어진 건물을 다시 부술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례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우리 법원에서는 A씨의 경우와 같은 사안에서 '일조권'과 '조망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양자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쉬운 표현으로 일조권은 '햇볕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조망권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어떤 경우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일조권의 경우, 대법원에서는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침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짓날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짓날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나, 피해의 정도,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회피 가능성, 법규의 위반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에(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등) 사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에서는 일조시간이 위 요건을 충족하고, 손해가 구체적이면서 D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B 아파트 주민들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망권은 인정되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특정의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조망이익을 중요한 목적으로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에만 조망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최근에는 창을 통해 보이는 외부 경관 중 하늘의 면적 비율을 뜻하는 '천공율',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조망침해율'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추세입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A씨의 사례에서 만약 C산과 B 아파트 사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었고 그 토지에 D 아파트가 지어진 것이라면,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 변화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조망권 침해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신축 경위, 방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있었는지 여부, 가해자 측의 해의(害意), 조망이 방해받는 정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우리 법에서는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에 관한 권리를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의 경우, 발생한 재산적·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난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재배 중인 난의 이전 비용 및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되,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난과 시설의 교환가치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조망권 침해 역시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조망을 방해받은 데서 비롯된 재산적 손해'를 증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경우에 따라 아파트 가치 하락분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문화생활

강렬한 태양의 기운이 가득한 여름. 뜨거운 열정을 상징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때로는 열정에도 휴식이 필요한 법이니 문화생활로 기분전환하고 다시 힘차게 달려가 보는 것은 어떨까. 권익위가 엄선한 전시와 도서를 소개한다.

글 • 편집실

전시 Exhibition

생텍쥐페리의 비행기와 삶 그리고 어린왕자

2016 어린왕자展(경기도박물관 / 9월 18일까지)

"어른들은 모두 한때 어린이였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들은 거의 없겠지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인 '어린왕자'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2016 어린왕자 展〉이 경기도박물관에서 열린다. 전시는 4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어린왕자 아트 컬렉션'으로 7개 별의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꾸며진다. 두 번째는 '어린왕자 인더다크'로 어두운 우주 속에 들어가 마치 어린왕자처럼 별을 여행하며 스토리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생텍쥐페리의 삶과 도전'이라는 테마로 평생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추구한 생텍쥐페리의 삶을 보여준다. 생텍쥐페리는 생애 마지막 비행에서 바닷속으로 침몰했는데, 당시 비행기를 인양하면서 발견된 생텍쥐페리의 유품인 팔찌가 전시된다. 또한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어린왕자 초판본에 관련된 다양한 일화와 어린왕자가 입은 코트가 초록색이 아닌 남색으로 많이 오해받게 된 원인 등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네 번째 구성은 '어린왕자 코드홍 시문기와 함께 날다'라는 주제로, 생텍쥐페리의 비행기 '코드홍 시문기'가 세계 최초로 전시되며, 생텍쥐페리와 함께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마지막 비행기 'P-38 Lightning'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도서 Book 1

세상이 함께 쓴 삶의 지혜

<내 삶을 바꾼 짧고 깊은 이야기> (전인류, 문화집단 내일 / 가갸날)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권익위가 개발한 국민생각함은 다수 국민의 생각을 발전시켜 정책과 행정으로 실현시키는 새로운 소통 플랫폼이다. 이처럼 다수의 생각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힘을 만들어가는 집단지성은 디지털 시대 인류의 화두 가운데 하나다. 고립된 개인은 더 이상 창조적이지도, 시대를 앞서가지도 못한다. 다수 사람들과의 협업, 네트워킹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도서 〈내 삶을 바꾼 짧고 깊은 이야기〉는 집단지성이 엮어 낸 60여 편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이다. 세상 사람들이 함께 빚은 이야기, 인생철학서라고 명명해도 좋은 듯싶다. 가족, 벗, 이웃, 연인, 동물, 지혜 등 6부로 구성되어 있다. 모인 자료 가운데 잠언과 운문은 별도의 '인생'이라는 책으로 엮었다. 책에서 선보이는 이야기는 특정 국가, 특정 지역을 뛰어넘어 21세기 초 우리 시대의 인류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인생철학이 담겨 있다. 지은이를 '전인류'라고 표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공동저자라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우리 인류가 만들어 낸, 철학자들보다 더 철학적인 인생론의 정수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Book 2

애틋하게 통속적인, 발칙하게 세련된 <핑거스미스> (세라 워터스 / 열린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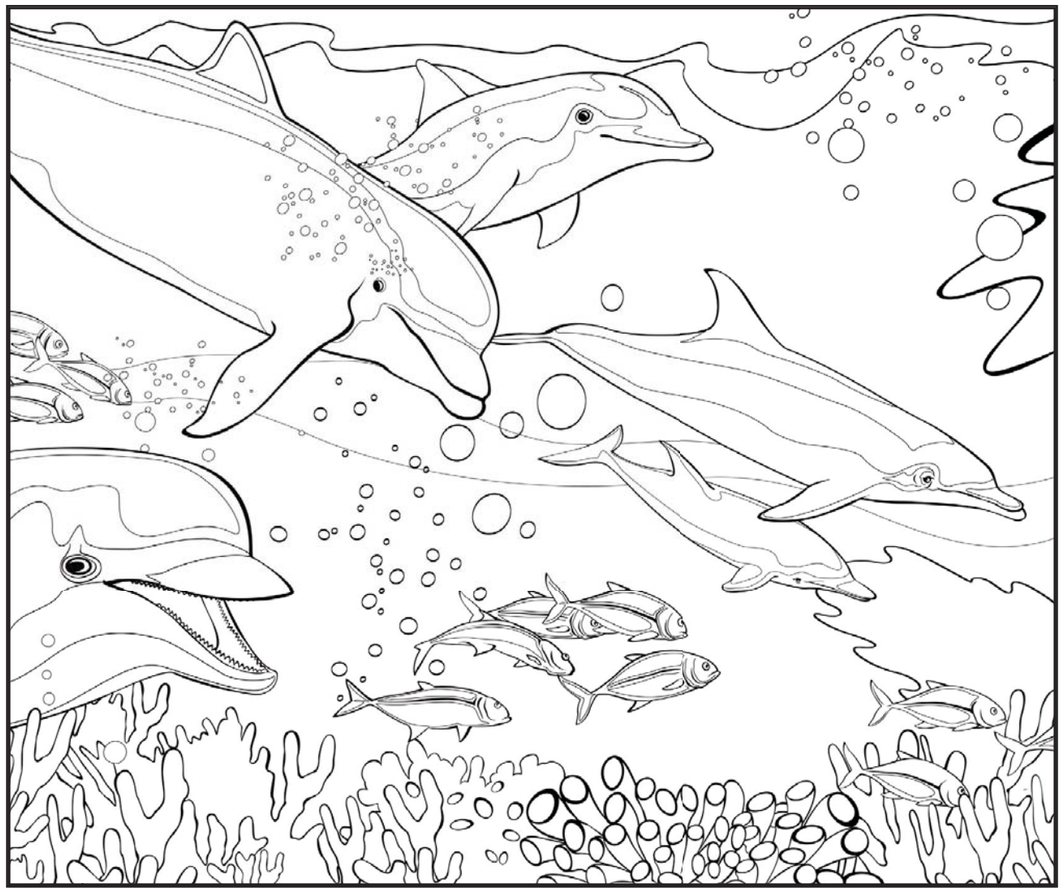
2016년 화제의 영화 〈아가씨〉. 영화의 원작 소설인 〈핑거스미스〉도 화제의 책으로 떠올랐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무대로 한 이 책은 세라 워터스의 세 번째 장편소설이다.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되어 소매치기들 틈에서 자라난 수 트린더. 그녀가 젠틀먼이라는 인물이 부유한 상속녀인 모드에게 구혼하는 일을 돕기 위해 시골 영지에 있는 모드의 하녀로 들어가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800페이지가 넘는 분량과 복잡하게 꼬이고 또 꼬여있는 플롯, 계속되는 반전에 독자는 숨 돌릴 틈 없이 이야기를 따라가게 된다. 이 소설의 진가는 이러한 전개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랑 방식에도 있다. 바로 수와 모드의 사랑. 일반적인 잣대에 벗어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둘의 사랑이지만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진행이나 장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이 이 소설로 하여금 그토록 광범위한 지지와 평가를 얻게 한 요인이 된 듯하다. 작가가 묘사하는 19세기 영국 사회는 너무나 공포스럽고 악취가 풍기는 곳이어서, 수와 모드의 사랑은 현실에서 그들의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선택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이 책은 추리 소설로는 드물게 부커상 후보에 올랐고, 영국추리작가협회의 역사 소설 부문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다.

힐링 컬러링

바닷속 이야기를 만들어주세요!

〈국민권익〉 독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아트테라피 공간. 다양한 컬러로 개성 있는 자신만의 페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예쁘게 채색 후 모두에게 자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때 성함,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말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보낼 곳: malee22@korea.kr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힐링 컬러링 당첨자>

김*정(kyun****@nate.com)
김*선(dlah****@gmail.com)
오*화(ehwa****@gmail.com)
이*수(gu****@naver.com)
박*화(wik****@naver.com)
소*(hwang****@hanmail.net)

당첨되신 분들은 아래의 이메일로 성함,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세요. 확인 후 선물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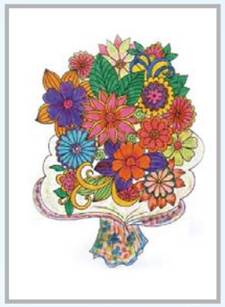
• 보낼 곳: malee22@korea.kr

김*정

김*선

오*화

이*수



박*화

소*

NEWS 1

권익위-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회, 청렴생태계 조성 한뜻

권익위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5월 26일 「방위산업 분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관계 법령 교육 등 청렴교육과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로 하고,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방안을 마련·추진하며, 방위산업진흥회는 회원사의 청렴경영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NEWS 2

권익위-한국세무사회, 세무 분야 청렴도 제고 상호 협력키로

권익위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12일 세무 분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협약을 계기로 권익위는 세무사회에 세무사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규범 가이드를 제공하고, 세무사회 임직원과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서약 및 청렴교육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NEWS 3

권익위, 도로공사 때문에 끊어진 산책로 민원 중재

권익위는 지난 6월 24일 도로공사 때문에 기존 산책로가 끊어져 통행이 불편하다며 고양시 왕릉·다락골 주민 108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중재하였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왕릉·다락골 간의 원활한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거쳐 공사 준공시까지 산책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고양시는 설치되는 시설물을 즉시 인수받아 유지·관리하며, 주민들은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NEWS 4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통행 불편 개선 현장조정회의 개최

권익위는 지난 6월 3일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통행 불편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한국도로공사는 통로박스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으며, 통로박스 설치 시 주민들의 통행하는 보도도 함께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NEWS 5

권익위, 외국 공무원 반부패 역량 증진에 앞장서

권익위는 외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연수생들의 요청에 따라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의를 확대했으며,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은 관세청을 견학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NEWS 6

「정부3.0 국민체험마당」 행정심판 구술청취 시연

이상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월 20일,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행정심판 구술청취 절차 등을 시연했다. 권익위는 국민들이 정부3.0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110 콜센터, 청렴콘서트 등의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을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했다.

NEWS 7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 사업을 위한 고위급 협력회의 개최

권익위는 지난 5월 27일, 튀니지에 국민신문고를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고위급 협력회의를 진행하였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민소통 창구로 2011년에 UN으로부터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이번 튀니지 진출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NEWS 8

제23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이상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월 21일, 제23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주재하였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 들어 세 번째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4건의 보훈 사건이 인용되어 구제받았다.

Reader's Page 소통마당

독자의견

지난 호 <국민권익>을 읽고 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은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의 애정어린 의견을 기다립니다. (기한: 8월 25일까지)

'생활법률상식'에서 다룬 연대보증 내용이 매우 유용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떠안은 적이 있습니다. 소개한 연대보증 관련 법률지식을 다시 숙지하여 관련 실수와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상식 부탁드립니다. **한승연(충남 홍성군)**

전북 정읍시에서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지하차도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자 현장조정 회의를 열어 모두가 협력하기로 한 내용을 다루었던 '현장 24시 2'가 좋았습니다.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완(서울 강남구)**

'그곳에 가면'을 보면서 봄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사회를 봄의 아름다운 향기로 없앴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으며, 이를 위해 권익위가 더욱 앞장 서주길 기대합니다. **이서진(경기 부천시)**

'2016 트렌드'에서 다룬 독소 해독법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공해와 매연, 화학물질, 황사까지 겹쳐 매년 봄 거리에는 마스크를 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몸에 해로운 독소를 배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 소개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유익한 기사였습니다. **송경희(경기 성남시)**

어린 시절 추억과 어머니의 손맛을 아련하게나마 기억할 수 있게 한 '한입의 행복' 기사가 가장 와 닿네요. 그 시절 '나물을 무슨 맛으로 먹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의 엄마 나이가 된 지금 각종 봄나물의 독특한 향과 참맛을 알면서 나물 요리를 즐기고 있답니다. **장인선(강원 춘천시)**

독자퀴즈

<국민권익> 2016년 여름호 잘 보셨나요? 이번 호 내용과 관련한 독자퀴즈입니다.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빈칸을 채워주세요.

Quiz.

권익위는 지난 5월 ○○○○○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2년간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 정책 · 경험 · 우수사례 공유, 기술지원, 공동연구, 교육훈련, 양자 심포지엄 개최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힌트! p.26 ACRC 리포트)

지난 호 정답	지난호 정답자
정부윤리청	김혜선(광주 북구) / 강구권(대구 달서구) 안종순(전남 해남군) / 서문석(대전 중구) 박서영(서울 노원구)

알려드립니다

미리 축하 <국민권익> 50호!

여러분들의 애정으로 발행해 온 <국민권익>이 어느덧 50호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래의 이메일 또는 엽서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사랑 듬뿍 담긴 메시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내실 곳: malee22@korea.kr

※ 성함과 주소, 연락처를 꼭 기입해주세요!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권익위를 잘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의견과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다섯 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국민권익〉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행정심판

"국민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청구하세요!

신속 · 공정한 권리구제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kr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행정심판 대상

- 각종 인 · 허가 및 면허 · 자격 관련 처분
- 영업정지·과징금·부담금 등 부과 처분
- 정보공개 거부 처분
- 학교폭력 재심결정
- 운전면허 취소 · 정지 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등

전화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